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日本語의 「ようだ」「らしい」研究

指導教授 金勝漢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李根一

2016年 8月



日本語의 「ようだ」「らしい」研究

指導教授 金勝漢

李根一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년 6월

李根一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6년 6월

<국문초록>

日本語의 「ようだ」「らしい」 연구

李 根 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勝漢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 유의표현(類義表現)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일본어의 추량표현은 다양한 유의표현(類義表現)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어의 추량표현 중에서도 「ようだ」와 「らしい」는 그 의미(意味)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어 학습자가 일본어의 「ようだ」와 「らし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ようだ」와 「らしい」의 의미와 용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수집한 예문을 분석하여, 각각의 의미와 용법이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ようだ」의 접속 형태는 다양하다. 「ようだ」는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의 연체형에 접속되었으며, 관정사 「だ」에는 접속할 수는 없으나, 관정사의 夕形인 「だった」에는 접속하였다. 명사인 경우는 「명사 + 연체조사(の)」에 「ようだ」가 접속하였다. 「의문표현(か)+연체조사(の)」의 형태에도 「ようだ」가 접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ようだ」의 의미는 추량, 비유, 예시로 나눌 수 있다. 「ようだ」의 추량은 어떠한 상황을 근거로 하여 추측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진술부사 「どうも どうやら・いかにも・さも」등과 「ようだ」가 호응 관계에 있으면, 추량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특히, 「何か・何だか」, 「だれか・だれも」, 「どこか・どれも・どの」, 「い

つか」 등 불확실한 사항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일 때도, 「ようだ」의 추량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ようだ」가 사고동사(思考動詞)인 「思う 思える・感じる・気がする・考える」와 함께 사용될 때도 「ようだ」의 추량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ようだ」의 비유의 용법은 「명사 + のようだ」와 「절(節) + ようだ」의 구문으로 나타나며, 진술부사 「まるで ちょうど」 등과 호응 관계에 있으면 「ようだ」의 비유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ようだ」의 예시의 용법은 하나의 예를 제시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용법이며, 진술부사 「たとえば」와 「ようだ」가 호응 관계에 있으면 예시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3) 「らしい」의 접속 형태도 다양하다. 「らしい」는 동사와 형용사의 종지형에 접속하며, 형용동사에는 어간에 접속하였고, 형용동사의 ㄱ형인 경우는 「だった」에 접속하였다. 관정사 「だ」에 「らしい」가 접속하면, 「だ」는 생략되었으나, 관정사의 ㄱ형인 「だった」와 「である」에는 「らしい」가 접속하였다. 또한 「らしい」는 명사뿐만 아니라, 형식명사, 부사, 격조사, 부조사에 접속하는 경우도 있다.

4) 「らしい」는 추량과 접미사의 용법으로 나눌 수 있다. 「らしい」의 추량은 어떠한 객관적인 사항을 근거로 하여 추측의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때 「どうも・どうやら・いかにも」와 같은 진술부사가 「らしい」와 호응 관계에 있으면, 「らしい」의 추량의 의미는 더 분명해진다. 접미사 「らしい」는 명사에 접속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역할을 하며 「にふさわしい」와 바꾸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5) 실제 언어현상에 있어서, 「ようだ」를 「らしい」로, 「らしい」를 「ようだ」로 바꾸어 사용하여도 의미상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추량의 「ようだ」와 추량의 「らしい」는 모두 어떠한 근거에 의거하여 추량 판단을 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ようだ」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추량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항이 「시각(視覺), 직접 체험, 자기 책임」 등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추량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항이 주로 「전문(傳聞), 간접 체험, 다른 사람의 조사 내용」 등인 경우는 「らしい」만을 사용할 수 있다.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II. 선행연구	3
III. 「ようだ」의 의미와 용법	5
3.1. 「ようだ」의 접속 형태	5
3.1.1. 동사와의 접속	5
3.1.2. 형용사와의 접속	6
3.1.3. 형용동사와의 접속	7
3.1.4. 관정사와의 접속	7
3.1.5. 명사와의 접속	8
3.1.6. 조사와의 접속	8
3.2. 「ようだ」의 의미	9
3.2.1. 추량	9
3.2.2. 비유	14
3.2.3. 예시	17
3.2.4. 「ようだ」의 「추량·비유·예시」의 비교	18
IV. 「らしい」의 의미와 용법	20
4.1. 「らしい」의 접속 형태	20
4.1.1. 동사와의 접속	20
4.1.2. 형용사와의 접속	21
4.1.3. 형용동사와의 접속	21

4.1.4. 판정사와의 접속	22
4.1.5. 명사와의 접속	23
4.1.6. 부사와의 접속	24
4.1.7. 조사와의 접속	24
4.2. 「らしい」의 의미	25
4.2.1. 추량	25
4.2.2. 접미사	27
4.2.3. 추량의 「らしい」와 접미사 「らしい」의 비교	28
V. 「らしい」의 의미와 용법	31
5.1. 「ようだ」와 「らしい」 모두 사용 가능한 경우	31
5.2. 「ようだ」만 사용 가능한 경우	34
5.3. 「らしい」만 사용 가능한 경우	36
VI. 결론	38
참고문헌	40
Abstract	43

I. 서론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 유의표현(類義表現)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특히, 일본어의 추량표현은 다양한 유의표현(類義表現)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어의 추량표현 중에서도 「ようだ」와 「らしい」는 그 의미(意味)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어 학습자가 일본어의 「ようだ」와 「らし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1) a. 先生は今日も忙しいようですね。 (이삼순, 2004年, p.136)
b. 선생님은 오늘도 바쁜 것 같다.
- (2) a. 春が来るようだ。 (김경호, 2004年, p.173)
b. 봄이 올 것 같다.
- (3) a. 笑い声がここまで聞こえるよ。楽しいらしいわね。 (이삼순, 2004年, p.136)
b.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즐거운 것 같아.
- (4) a. 彼はたばこを吸わないらしい。 (김경호, 2004年, p.173)
b.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 같다.

예문 (1)~(4)는 일본어 문법 교재에서 「ようだ らしい」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1), (2)에서 일본어 「ようだ」는 한국어로는 「~것 같다」로 번역하였다. (3), (4)에서와 같이 일본어 「らしい」도 한국어로는 「~것 같다」로 번역하였다. 즉, 일본어의 「ようだ·らしい」의 두 어휘를 한국어로는 모두 「~것 같다」로 번역하였다. (1)~(4)에서처럼, 일본어의 「ようだ·らしい」와 같은 두 어휘가, 한국어 번역에서는 「~것 같다」와 같이 한 어휘와 대응된 것이다. 한국어의 추량 표현 「~것 같다」가 일본어에서 「ようだ·らしい」와 같은 두 가지 추량 표현과 대응되고 있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그 의미 영역을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 논문은 일본어 추량 표현 「ようだ」와 「らしい」의 의미의 차이에 초점을 맞

추어 그 중심 의미를 밝히고 두 추량 표현의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즉 「ようだ」와 「らしい」의 의미와 용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수집한 예문을 분석하여, 각각의 의미가 어떤 요인에 의하여 해석되는지 고찰하겠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ようだ」와 「らしい」가 지금까지 어떠한 범주에서 연구되어 왔는지 간단히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ようだ」의 의미와 용법, 4장에서는 「らしい」의 의미와 용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리고 5장에서는 3, 4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ようだ」와 「らしい」의 의미와 용법을 비교하여, 각각의 의미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ようだ」와 「らしい」의 의미와 용법을 고찰하는 데 필요한 예문은 주로 일본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서 인용하였다. 그리고 적절한 예문을 찾지 못한 경우는 참고문헌에서 재인용하였다.

II. 선행 연구

「ようだ」와 「らしい」는 추량의 의미를 갖는 조동사의 범주에서 연구되어 왔다. 寺村秀夫(1984)¹⁾는 추량 조동사를 「概言のムード」라는 범주로 설명하였는데, 여기서 ‘概言’의 의미는 화자가 어떤 사태의 진위에 관해서 확신할 수 없지만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현재의 정보에 근거해서 ‘어떠한 상황이 대체로 그러하다’고 전하는 표현 방식을 말한다.

寺村는 「概言のムード」에 속하는 것으로는 「ようだ らしい」와 함께 「だろう・まい・かもしれない・にちがいない・そうだ(予想·予感)·みたいだ·そうだ(伝聞)」 등의 표현을 제시하였다.

「ようだ」는 크게 「형태·통어적 특징」과 「의미·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형태·통어적 특징」에서는 「ようだ」의 「접속」, 「활용」을 다루었다. 「의미·용법」의 경우는 크게 「추량」과 「비유」의 용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 경향의 추측」, 「일상 회화에서의 용법」, 「ようだ의 부정·과거·의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らしい」도 「ようだ」와 마찬가지로 「형태·통어적 특징」과 「의미·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형태·통어적 특징」에서는 「らしい」의 「접속」, 「활용」을 다루었다. 「의미·용법」에서는 주로 「らしい와 ようだ의 비교」, 「접미사의 らし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밖에도 「らしい의 과거·의문·부정」과 「접미사(らしい)의 부정」을 다루었다.

益岡隆志·田窪行則(1993)²⁾도 『基礎日本語文法(改訂版)』에서 일본어의 「ようだ·らしい」와 같은 추량표현을 「概言のムード」라고 하였으며, 이 「概言のムード」를 다시 「だろう·まい」(断定保留), 「らしい·ようだ·みたいだ·はずだ」(証拠のある推定), 「かもしれない」(可能性), 「にちがいない」(直感的確信), 「そうだ」(様態), 「そうだ·という·とことだ(伝聞)」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일본어의 추량 표현을 폭넓게 해석한 견

1) 寺村秀夫(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第Ⅱ巻)』, くろしお出版, pp.242-254 참조.

2) 益岡隆志·田窪行則(1993), 『基礎日本語文法(改訂版)』, くろしお出版, pp.25-28 참조.

해라고 할 수 있다.

「ようだ」와 「らしい」의 의미에 관해서는, 추량 판단의 근거가 되는 상황의 성격을 중심으로 「ようだ·らしい」의 용법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ようだ」와 「らしい」에 관한 연구는 「ようだ」와 「らしい」의 비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ようだ·らしい·だろう·そうだ(樣態)」의 비교도 있었다. 「ようだ」와 「らしい」를 비교한 논문에는 柏岡珠子(1980)³⁾, 田野村忠温(1991)⁴⁾ 등이 있으며, 추량 판단의 근거가 되는 상황(狀況)의 성격을 중심으로 「ようだ」와 「らしい」의 의미 용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었다.

3) 柏岡珠子(1980), 「ヨウダとラシイに関する一考察」, 『日本語教育』(41号), 日本語教育学会 참조.

4) 田野村忠温(1991), 「『らしい』と『ようだ』の意味の相違について」, 『言語学研究』(10号), 京都大学言語学研究室 참조

Ⅲ. 「ようだ」의 의미와 용법

3.1. 「ようだ」의 접속과 활용의 형태

3.1.1. 동사와의 접속

- (5) a. シャボン玉のプチプチ弾けるような声が、聞こえるような、聞こえたような—そんな気がしてきました。 (学校 - 小4年上 p.14)
- b. 小さな手からはなれて冬の空に吸い込まれていった情景が目に浮かぶようであった。 (東京 - 小5年上 p.6)
- c. やっと捕まえた蟬を、大切に持って走ってくる子供の真剣な表情が見えるようです。 (学校 - 小6年下、p.10)
- d. 大きなひょうが降ってきて、パラパラと頭や顔にあたるようだ。 (東京 - 小5年上、p.58)
- (6) a. ところが、数日前、私が風邪をひいて寝込んだとき、今まで気が付かなかった母の忙しさがよく分かったような気がした。
- b. この子が撮った写真は、まるでプロのカメラマンが取ったようだ。 (加藤泰彦、1987年, p.123)
- c. 残雪は、突然にひろがった世界に驚いたようでありました。 (東京 - 小5年下、p.22)
- d. その様子は、にわかにな年取って、今までとは、まるで人が変わったように見えた。六十歳という年が、力の抜けた全身に急に重くのしかかったようであった。 (東京 - 小6年上、p.51)
- (7) a. 空飛ぶ円盤や宇宙人を見たことのない人の大半は、こういう話はあまり信用できないと考えているようです。 (東京 - 小6年上、p.82)
- b. 察するに学生達はだいぶ不満を持っているようだ。

c. 夕映えも、ヒロヒロとつづく菜の花畑の向こうへ淡く消え去ろうとしているようです。

(東京 - 小6年上 p.51)

d. もう、雨が降っても家のなか*にいれてくれ*とは言いません。島のどこかで、一人で眠っ
ているようです。

(東京 - 小3年上、p.14)

(8) a. あの子はやはりピアノの練習を一人でしていたようだ。

b. すっかり気を取られて、ボウツとしていたようでしたね。 (東京 - 小4年上、p.19)

(5)에서 「ようだ」는 동사 「弾ける・浮かぶ・見える・あたる」 뒤에 접속하고 있다. 「弾ける・浮かぶ・見える・あたる」는 동사의 기본형으로, 「ようだ」에 접속된다. (6)에서 「ようだ」는 동사 「タ系連体形」인 「分かった・取った・驚いた・のしかかった」에 접속한 것이다. (7)은 「考えている・持っている・している・眠っている」 등의 동사 「テイル」의 연체형에 「ようだ」가 접속한 것이고, (8)은 「していた」 등의 동사 「テイタ」의 연체형에 「ようだ」가 접속한 것이다. (5)~(8)에서처럼 「ようだ」는 동사의 연체형에 접속한다.

3.1.2. 형용사와의 접속

(9) a. そんなにいろんな責任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と思うと、怖いような気さえしてきました。

b. 인도의美術に明るいようだ。

c. それぞれの方向にさったあと、前後の一を変えて引き換えし、元の縦列に加わるように
見えた。そのやり方は、ひどく鈍いように思えた。 (東京 - 小6年上、p.91)

d. その糸の流れる方向に尻を向けようと動き回る。見ていて、いじらしいような気持ちにな
る。 (東京 - 小4年上、p.45)

(10) a. 四班は、いろいろな意見が出て、まとまっていません。だいたい、一班(いっばん)と
同じような案が多かったようです。 (光村82 - 小5年上 p.23)

b. 昨日の試験は易しかったようだ。

(9)는 형용사 「連体形」인 「怖い・明るい・鈍い・いじらしい」에 「ようだ」가 접속

한 것이고, (10)은 형용사 「タ系連体形」인 「多かった 易しかった」에 「ようだ」가 접속한 것이다. (9, 10)처럼 「ようだ」는 형용사의 「連体形」에 접속한다.

3.1.3. 형용동사와의 접속

- (11) a. 星の配列だけで熊を想像をするのは、どうも無理なようです。 (学校 - 小4年下 p.81)
 b. 彼はどうやら暇なようだ。 (加藤泰彦、1987年、p.122)
 c. 今朝の海はここから見ると静かなようだ。 (加藤泰彦 1987年、p.122)
- (12) a. だいふ暇なようだな。 (寺村秀夫、1984年、p.242)
 b.今日は暇だったようだな。

(11)은 형용동사「無理だ·暇だ·静かだ」의 연체형인 「無理な·暇な·静かな」에 「ようだ」가 접속한 것이다. (11)과 같이, 「ようだ」는 형용동사의 연체형에 접속한다. (12b)에서처럼 형용동사가 「タ形」일 경우에는 「だった」에 「ようだ」가 접속한다.

3.1.4. 판정사(判定詞)와의 접속

- (13) a. 寒い風をはらんだテントがハタハタとなって、サーカス小屋は、まるで海の上を走る帆掛け船だったようだ。 (東京 - 小3年下、p.98)
 b. *寒い風をはらんだテントがハタハタとなって、サーカス小屋は、まるで海の上を走る帆掛け船だようだ。
- (14) a. そして、じいさんを正面からにらみつけました。それは、鳥とはいえ、いかにも頭領らしい、堂々たる態度だったようだ。 (東京 - 小5年下 p.22)
 b. *そして、じいさんを正面からにらみつけました。それは、鳥とはいえ、いかにも頭領らしい、堂々たる態度だようだ。

「ようだ」가 판정사(判定詞)⁵⁾ 「だ」에 접속하는 경우는 예문 (13, 14)와 같이, 「だ」의

「タ形」인 「だった」의 형태에는 접속할 수 있으나, 판정사인 「だ」에는 접속할 수가 없다. (13a, 14a)에서 「帆掛け船だった 態度だった」에 「ようだ」가 접속한 것은 자연스럽지만, (13b, 14b)처럼 「だ」의 기본형에 접속한 형태인 「帆掛け船だ・態度だ」에 「ようだ」가 접속하면 비문이 된다.

3.1.5. 명사와의 접속

(15) a. あの女学生は、まるで男の子のようだ。

b. この子の考え方は、まるで大人のようだ。

c. アリが蝶のはねをひいていく。ああ、ヨットのようだ。

d. 茶色の子犬のような子供たちは、枝の上でじゃれあっていた。

(東京 - 小3年下 p.40)

e. 登りがなは、まるで竜のように、あちこちから白い炎の舌をちらつかせ、すさまじい唸り声を上げた。

(東京 - 小6年下、p.54)

(15)는 「男の子、大人、ヨット、子犬・竜」와 같은 명사에 「ようだ」가 접속된 예문이다. 이 경우 「ようだ」는 명사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連体助詞(の)」의 형태에 「ようだ」가 접속한다.

3.1.6. 조사와의 접속

(16) a. 리스는木の枝の上をまるで運動場であるかのように走り回ります。

(東京 - 小5年下、p.22)

b. 波と戯れてでもいるかのようにころころと転がってきます。

(東京 - 小6年下、p.26)

5) 益岡隆志・田窪行則(1993), 『基礎日本語文法(改訂版)』, くろしお出版, pp.25~28 참조.
동사와 형용사는 단독으로 술어(述語)가 될 수 있지만, 명사는 단독으로 술어가 될 수 없다. 명사와 결합하여 술어를 만드는 것을 판정사(判定詞)라고 한다. 일본어의 판정사에는 「だ・である・です」 등이 있다.

(16)은 의문을 나타내는 종조사 「か」에 「ようだ」가 접속한 예문이다. 의문표현(疑問表現) 「か」로 이루어진 「運動場であるか, 戯れてでもいるか」와 같은 절(節)에 조동사 「ようだ」가 접속하고 있다. 이 경우, 「ようだ」는 의문표현 「か」로 이루어진 절(節)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표현(か)+連体助詞(の)」의 형태에 「ようだ」가 접속한다. 「ようだ」가 종조사 「か」 이외에 다른 조사에 접속하는 예문을 찾을 수가 없었다.

3.2. 「ようだ」의 의미

「ようだ」의 의미는 크게 추정(推定)과 비유(比喩)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추정은 대부분 문말 술어에 붙어 쓰이면서 근거가 되는 대상이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관계없이 화자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을 직접 나타내는 것으로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서술한다. 비유는 어떤 사물의 상태를 다른 것에 비유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예시와 세분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2.1. 추량(推量)

(17) 入試地獄は当分解消しそうもないようだ。

(18) 君とよく遊んだ空き地があるでしょう。あそこに今度大きなビルが建つようです。

(東京 - 小4年下 p.29)

(19) 玉の届く距離の三倍もはなれている地点をエバにしているようでした。

(東京 - 小5年下, p.17)

(20) 地図で見ると、彼女の学校からはうちまで直線でも二キロ近くあるようだ。

(東京 - 小5年下 p.6)

(21) 外から入れないように、かこいができて、工事が始まっています。この辺りも少しずつ変わっていくようです。

(東京 - 小4年下, p.29)

(22) 昭和37年頃から、水田の害虫をのぞくために大掛かりに農薬がまかれ、クモはさらに

少なくなったようです。

(東京 - 小4年下 p.50)

(17)에서 「ようだ」는 「入試地獄は 分解消しそうもない」라는 서술내용(叙述内容)을 근거로 하여 추량 판단을 내린 것이다. (18)에서도 「あそこに今度大きなビルが建つ」라는 서술내용에 대하여, 단정을 피하고 추측을 하는 것이 「ようだ」의 역할이다. (19)는 「玉の届く距離の三倍もはなれている地点をエバにしている」라는 서술내용을 근거로 추량 판단을 내린 것이다. (20~22)도 「彼女の学校からはうちまで直線でも二キロ近くある」, 「この辺りも少しずつ変わっていく」, 「水田の害虫をのぞくために大掛かりに農薬がまかれ、クモはさらに少なくなった」와 같은 서술내용에 대하여 추량 판단을 내리고 있다.

(17~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술 내용」이 조동사 「ようだ」에 작용에 의하여 추량 표현이 된다고 본다. 즉, (17~22)에서 「ようだ」는 확실한 단정을 피하면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 「그럴 것 같다」고 추측하는 표현이다.

추량을 나타내는 「ようだ」는 다음과 같이 진술부사(陳述副詞)와 함께 쓰일 수도 있다.

(23) a. 星の配列だけで熊を想像をするのは、どうも無理なようです。

(学校 - 小4年下、p.9)

b. 体重が急に増えたり減ったりすると、どうも、体の調子がよくないようだな。

(東京 - 小4年下、p.17)

c. 『どれどれ、熱はどうかな。』…中略…「ウーン。どうもだいぶあるようだな。だけど、昨日よりは少し下がっているかな。」

(東京 - 小4年下 p.121)

(24) a. 王様は、どうやら、みんなの言ってることが正しいように思いましたが、今更、行列をやめるわけには行きません。

(学校 - 小4年下 p.70)

b. 表紙はどうやらAさんが書くようだ。

(김우열, 1973年, p.109)

c. 発音から察するに、彼はどうやらフランス人のようだ。

(加藤泰彦, 1987年, p.122)

d. 彼はどうやら暇なようだ。

(加藤泰彦, 1987年, p.122)

- (25) a. いかにも待ち構えていたように思われますので、すぐには返事をしませんでした。
(学校 - 小3年下 p.112)
- b. それはいかにも本当のような話ですが、実は真っ赤な嘘なのです。
(松本節子、1993年、p.127)
- c. いかにも、王様の服を縫い上げようと、忙しく働いているように見えました。
(東京 - 小4年下、p.67)
- (26) a. さもよく見たかのように話しているが、実は彼は何も見てないのだ。
(松本節子、1993年、p.127)
- b. 口の横わきを、さも痒(かゆ)いようなふりをして指でこすりながら……
- (27) 四班は、いろいろな意見が出て、まとまっていません。だいたい、一班(いっぱん)と同じような案が多かったようです。
(光村82 - 小5年上 p.23)

(23~27)에서 「ようだ」는 진술부사 「どうも どうやら・いかにも・さも」와 함께 쓰이고 있다. 이들 부사는 「아마, 흡사, 아무래도, 자못, 어쩐지」 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 경우 「ようだ」의 추량의 의미가 더 분명히 나타난다. (27)의 「だいたい(大体)」는 「대개, 대충, 거의」의 뜻을 나타내는 정도부사(程度副詞)이지만, 추량의 「ようだ」와 잘 어울리고 있다.

다음 (28~33)은 추량의 「ようだ」가 의문표현(疑問表現)과 함께 쓰인 예문이다. 의문(疑問)을 나타내는 표현(表現)이 「ようだ」를 수식(修飾)하는 위치에 있으면 「ようだ」의 추량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 (28) a. 二匹の子熊は、先を争って、ころげこむように、岩の下に潜り込みました。そして、何か拾って、盛んに食べているようです。
(学校 - 小4年下、p.110)
- b. 何かヒロコちゃんも感じていることがあるようにも思われた。
(東京 - 小6年下、p.110)
- c. それが何だか馬鹿げたことのように思えてくるのだ。
(東京 - 小5年下、p.5)
- d. 何だかあのお母さんが、探しているような錯覚を起こしました。
(東京 - 小6年下、p.104)

- (29) a. ブラブラ遊びに出かけました。中山さまのお城の下を通って、少し行くと、細い未知の向こうから、だれか来るようです。 (東京 - 小5年下 p.20)
- b. だれもが考え付かないような面白いたとえを見つけて... (学校 - 小3年下、p.90)
- (30) a. もう、雨が降っても家のなかにいれてくれとは言いません。島のどこかで、一人で眠っているようです。 (東京 - 小3年下 p.14)
- b. 汗を流してマルタを組み、タワラを運んだ苦しさも、どこかへ吹っ飛んだような顔です。 (学校 - 小3年下、p.83)
- c. それに、クモのえさは生きた虫ですから、それを集めるのもたいへんです。そのため、クモを飼って糸をとろうという研究は、どれも、うまく行かなかったようです。 (学校 - 小3年下、p.48)
- d. どの顔付きも、楽しくてたまらないように見えました。 (学校 - 小3年下、p.50)
- (31) 私もいつかヒロコちゃんのことを、忘れていくようでした。 (東京 - 小6年下、p.110)
- (32) 不思議なことだが、頭の中がひろくなったようで、何もかも頭の中にはいるのだ。 (東京 - 小6年下、p.85)
- (33) 気のせいか、馬の目に命がとまり、体全体が、生き生きしてきたように見えた。 (東京 - 小6年下、p.18)

(28)의 「何か 何だか」는 의문어 「何」에 불확실한 것을 나타내는 「か」가 접속한 형태이다. (29)의 「だれか」는 의문어 「だれ」에 불확실한 것을 나타내는 「か」가 접속한 형태이며, 「だれも」는 의문어 「だれ」에 부조사(副助詞) 「も」가 접속한 것이다. (30)의 「どこか・どれも・どの」 등은 지시어(指示語) 「ど系列」의 의문표현이다. (31)의 「いつか」도 「何か」처럼 「疑問語(いつ・何)+か」의 형태로 불확실한 것을 나타낸다. (32, 33)의 「不思議なこと다(이상한 것이다)」와 「気のせい(기분 탓인지)」도 불확실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8~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何か・何だか」, 「だれか・だれも」, 「どこか・どれも・どの」, 「いつか」, 「不思議なこと다(이상한 일이지만)」, 「気のせい(기분 탓인지)」 등 불확실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이면, 「ようだ」의 추량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34~39)은 추량의 「ようだ」가 사고(思考)를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쓰인

예문이다.

- (34) 王様は、どうやら、みんなの言ってることが正しいように思いましたが、今更、行列をやめるわけには行きません。
- (35) a. それぞれの方向にさったあと、前後の一を変えて引き換えし、元の縦列に加わるように見えた。そのやり方は、ひどく鈍いように思えた。
b. 弟の時よりも楽に勝てたように思えました。 (光村82 - 小5年下 p.109)
c. 自分ならどうするだろうか、と考えて読むようにもなりました。すると、その人物が、身近にいる人のように思えてきました。 (光村80 - 小3年下、p.67)
- (36) a. 二本の鉛筆の先を一センチほどはなしてならべ、それで背中を突っついてみても、一本の鉛筆で突っついていてるように感じます。 (東京 - 小5年下、p.38)
b. もっと高く、もっと高く、だんだん登っていった。木は、下から見て感じられたようにはなめらかではなかった。 (東京 - 小5年下 p.84)
c. 海は、漁師だった父の心を誘っているような感じがしてきた。
(東京 - 小4年下、p.101)
- (37) a. それで重くのしかかっていたなまりの空も少し遠のいたような気がする。
(東京 - 小5年下、p.4)
b. 彼は、急に体の中の血が、すうっと冷たくなったような気がしました。
(光村82 - 小5年下、p.70)
c. ところが、数日前、私が風邪をひいて寝込んだとき、今まで気が付かなかった母の忙しさがよく分かったような気がした。 (東京 - 小6年下、p.48)
d. 妙にじめじめとした朝からの気分がこれでいっぺんに吹っ飛んでしまったような気がした。
(東京 - 小5年下、p.6)
- (38) 空飛ぶ円盤や宇宙人を見たことのない人の大半は、こういう話はあまり信用できないと考えているようです。 (東京 - 小6年下、p.82)
- (39) a. 気のせい、馬の目に命がとまり、体全体が、生き生きしてきたように見えた。
b. その様子は、にわかにな取って、今までとは、まるで人が変わったように見えた。六十歳という年が、力の抜けた全身に急に重くのしかかったようであった。
(東京 - 小6年下、p.51)

c. やっとつかまえた蟬を、大切に持って走ってくる子供の真剣な表情が見えるようです。
 (東京 - 小6年下 p.10)

(34~38)에서 「ように思う・ように思える・ように思えてくる・ように感じる・ような気がする・考えているようだ」와 같이 추량의 「ようだ」가 사고동사(思考動詞)인 「思う・思える・感じる・気がする・考える」와 함께 쓰여서 「ようだ」의 추량의 의미가 더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9)의 「ように見える・見えるようだ」의 「見える」는 시각(視覺)을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感じられる」와 같은 사고의 의미로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ようだ」가 사고동사(思考動詞)와 함께 쓰이면 「ようだ」의 추량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3.2.2. 비유(比喩)

「ようだ」는 추량의 역할 이외에 비유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40) a. あの外人は日本人のような顔をしています。
 b. アリが蝶のはねをひいていく。ああ、ヨットのようだ。
 c. マッチ箱のような家ですね。
 d. からすがい(烏貝)というのは、貝殻の色が鳥のように黒いので、このような名前がついたのです。
 (東京 - 小4年下, p.74)
 e. 二葉の葉の筋は、木のえだのようだが、本葉の筋は、網の目のようだ。
 (光村80 - 小3年下 p.38)
 f. 4月なのに、夏のような暑さだ。
 (日本語教育事典, 377)
- (41) a. よほど疲れたらしく、死んだように眠っている。
 (日本語教育事典, 377)
 b. あの人は泣いたような顔をしている。
 (基本語用例事典, 1073)
 c. 試合に勝って、あの子は鬼の首を取ったように得意になっている。
 (名柄迪1987, 118)
 e. あの丸い顔がよく表わしているように、あの人の性格は非常に円満だ。

(40a)에서 「ようだ」는 주어인 「外人」을 명사 「日本人」에 비유하고 있다. (40b~40f)에서도 각각의 「アリが蝶のはねをひく様子・家・鳥貝・本葉の筋・4月の天気」를, 명사「ヨット・マッチ箱・鳥・網の目・夏」에 비유하고 있다. 「ようだ」의 비유 용법은 주로 「명사 + のようだ」의 형태로 쓰이지만, (41)처럼 「ようだ」가 「死んだ」, 「泣いた」, 「鬼の首を取った」, 「あの丸い顔がよく表わしている」와 같은 절(節)에, 비유의 「ようだ」가 접속하기도 한다.

비유를 나타내는 「ようだ」는 「まるで」와 같은 진술부사(陳述副詞)와 함께 쓰일 수도 있다. (42, 43)에서 비유의 「ようだ」는 진술부사 「まるで, ちょうど」와 함께 쓰이고 있다. 이들 부사는 「마치, 꼭, 흡사」 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 경우 「ようだ」의 비유의 의미가 더 분명히 나타난다.

- (42) a. 登りがたは、まるで竜のように、あちこちから白い炎の舌をちらつかせ、すさまじい唸り声を上げた。 (東京 - 小6年下 p.54)
- b. 寒い風をはらんだテントがハタハタとなって、サーカス小屋は、まるで海の上を走る帆掛け船のようだった。
- c. あの女学生は、まるで男の子のようだ。 (加藤泰彦, 1987年, p.123)
- d. この子の考え方は、まるで大人のようだ。
- (43) その雲の上の方は、ちょうど夏の入道雲のようになっていてそこで雷がおこる。 (東京 - 小4年下、p.108)

(42)에서 주어를 「A」라 하고, 비유의 대상을 「B」라고 하였을 때, 「Aは、まるで Bのようだ」의 구문(構文)이다. (42a, 42b)에서는 주어인 「登りがた・サーカス小屋」를 각각 「龍・帆掛け船」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42c, 42d)도 주어인 「あの女の子・この子の考え方」를 「男の子・大人(の考え方)」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43)는 「Aは、ちょうど Bのようだ」의 구문으로, 「雲の上の方」를 「夏の入道雲」

에 비유하고 있고 있다.

(42, 43)에서처럼, 주어의 비유 대상이 「まるでBのようだ」, 「ちょうどBのようだ」와 같이, 「まるで·ちょうど」와 「ようだ」의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어의 비유 대상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44)에서는 「まるで·ちょうど」와 「ようだ」와의 사이에 서술 내용이 나타나는 예문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44) a. 海には波一つなく、辺は、まるですべてのものが魔法にかかったように、サインとして
いました。 (東京 - 小3年下、p.8)

b. その険しい目の光は、壺の豊かな膨らみの中へ、まるで溶け込むように消えてしまっ
た。 (東京 - 小6年下 p.51)

c. その様子は、にわかに年取って、今までとは、まるで人が変わったように見えた。六十
歳という年が、力の抜けた全身に急に重くのしかかったようであった。

d .見る間に、辺りの木に、数しれぬ鳥が集まってきて、まるで、一面、百千の鳥の花
が咲いたように見えたものさ。 (東京 - 小6年下、p.43)

e .この子が撮った写真は、まるでプロのカメラマンが取ったようだ。

(45) それは丁度、東京から横浜へでも行ったような感じに過ぎない。

(東京 - 小6年下、p.87)

(44)의 내용을 구문화하면, 「Aは、まるでB-ルようだ」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45)에서는 주어의 비유 대상이 명사였다면, (44, 45)에서의 비유 대상은 설명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4a)에서는 주어인 「海の辺」를 「すべてのものが魔法にかかったこと」라는 내용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44b)도 「目の光」를 「溶け込むこと」라는 서술 내용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44c)도 「その様子」와 「人が變ったこと」라는 서술 내용을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4d, 44e)에서도 「辺りの木の様子」, 「子が撮った写真」라는 주어를, 「一面、百千の鳥の花が咲いたこと」, 「子が撮った写真」라는 서술 내용에 비유하는 것이다.

(45)는 「Aは、ちょうど B-ルようだ」의 구문이다. 「それ」를 「東京から横浜へで

も行ったこと」에 비유하고 있다.

(44, 45)은 주어를 「まるで・ちょうど」와 「ようだ」 사이의 서술 내용에 비유한 것이다. 이 때, 설명 내용은 「B-ル」처럼 절(節)의 형태로 사용된다.

3.2.3. 예시(例示)

- (46) a. 赤ちゃんは鈴のようなものをよろこぶ。 (김우열 1973年、p.109)
b. 彼のように正直な人は少ない。 (田近洵一: 143)
c. 東京のような都会に住みたい。 (新国語研究会編: 106)
d. 俳優のようにきれいだ。 (김경호, 2004年, p.173)
e. サッカーやラグビーのような激しい運動が好きだ。 (日本語教育事典: 378)
f. 北海道のように寒い地方では、春と夏が一緒にやってくる。
(日本語教育事典: 378)
- (47) a. 人に笑われるようなへまはしない積りだ。 (日本語教育事典: 378)
b. はたらかないで、お金をもらえるような仕事はないでしょうか。
(基本語用例辞典: 1073)
c. だれにでもできるような易しい試験でした。 (名柄迪 1987年、p.119)

「3.2.2」의 비유가 「Aは、まるで Bのようだ」의 구문이었다면, 「3.2.3」의 예시는 「BのようなA」의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A를 설명하기 위하여 B의 위치에 예(例)를 제시하는 구조이다. (46a~46f)에서는 「もの・正直な人・都會・きれいな(人)・激しい運動・寒い地方」를 설명하기 위하여 「鈴・彼・東京・俳優・サッカーやラグビー・北海道」를 예(例)로 제시한 것이다.

(47a~47c)에서는 「へま・仕事・試験」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용한 예시(例示)의 내용이 「人に笑われること・はたらかないで、お金をもらえること・だれにでもできること」이다. (46, 47)에서 예시의 내용은 수식(修飾)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3.2.4. 「ようだ」의 「추량·비유·예시」의 비교

「3.2.1」~「3.2.3」에서 「ようだ」의 「추량·비유·예시」의 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 (48) a. 今日はどうやら運が悪いようだ。早く家に帰ろう。
(49) a. まるであの人は日本人のように上手に日本語を話します。
(50) a. たとえば、あの店には、鉛筆や消しゴムのようなものを売っています。

(48)에서 (48a)처럼 「どうやら」를 넣어도 적격문이다. 「どうやら」와 「ようだ」가 호응하면 「ようだ」는 의미·용법은 「추량」이다. (49)에서는 (49a)처럼 「まるで」를 넣어도 적격문이 된다. 이처럼 「まるで」가 「ようだ」와 호응하면 「비유」의 용법이다. 또한 (50)에서는 「たとえば」를 넣어 보면 (50a)처럼 적격문이 된다. 즉, (50)은 「たとえば」와 「ようだ」가 호응하기 때문에 「예시」의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유의 「ようだ」와 예시 「ようだ」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유의 「ようだ」인지 예시 「ようだ」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 (51) 三月だというのに、今にも雪が降ってくるようにさむい。 (小鹿良太: 112)
a. 三月だというのに、まるで今にも雪が降ってくるようにさむい。
b. 三月だというのに、たとえば今にも雪が降ってくるようにさむい。

(51)의 예문은 (51a)처럼 「まるで」와도 잘 어울리며, 또한 (51b)처럼 「たとえば」와도 잘 어울린다. (51)은 비유의 「ようだ」인지, 예시의 「ようだ」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예문이다.

- (52) キャッチボールをやりすぎて、腕が鉛のように重い。 (小鹿良太: 112)
a. キャッチボールをやりすぎて、腕がまるで鉛のように重い。
b. *キャッチボールをやりすぎて、腕がたとえば鉛のように重い。

(52)의 예문은 (52a)와 같이, 「まるで」와는 잘 어울리지만, (52b)에서 부사 「たとえば」는 어쩐지 어색한 느낌이 든다.

(51)에서는 「三月(삼월)」이라도, 실제(實際)로 「雪(눈)」이 내릴 수는 있다. 그러나 (52)에서는 「腕(팔)」이 실제(實際)로 「鉛(납)」이 될 수는 없다. 즉, 「ようだ」의 예문에서 실제(實際)로 그러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사항이면 「예시」이고 실제(實際)로 그러한 것이 일어날 수 없는 사항이면 「비유」이다⁶⁾. 따라서 (51)의 「ようだ」는 「예시」의 예문이며, (52)의 「ようだ」는 「비유」의 예문이다.

6) 小鹿良太編(1993), 『国文法入試の達人』, 文英堂, pp.112~113 참조.

IV. 「らしい」의 의미와 용법

4.1. 「らしい」의 접속과 활용의 형태

4.1.1. 동사와의 접속

- (53) a. 彼は今度の都知事選に立候補するらしいです。 (桜井晴美 1991年、p.48)
b. 馬やイヌとも仲よしでした。特に、馬のポンコとは気が合うらしく、その背に乗って、ユラリユラリと散歩です。 (東京 - 小3年下、p.16)
c. 気圧計の針が下がってきたから、どうも明日は雨が降るらしい。
- (54) a. 彼は今度の選挙でずいぶん金を振りまいたらしい。 (桜井晴美、1991年、p.51)
b. 料理はいかにも即席で用意したらしく、インスタントのものがそのままならんでいた。
c. たとえ十銭でも二十銭でも、毎日、パンを買ってやらなけりゃー母は、そう心に決めたらしい。 (東京 - 小年下 p.9)
- (55) a. 彼の店のハンバーガーは猫の肉を使っているらしいといううわさが振りまかれた。 (桜井晴美、1991年、p.52)
b. 環境に配慮したエンジンを開発するため、各企業は必死に研究を続けている。担当者は休日出勤までして開発に力を注いでいるらしい。
c. 彼の言い方からすると、相当頭に来ているらしいです。 (加藤泰彦、1987年、p.126)
- (56) a. 田中君は先週ずっと授業を休んでいて、試験を受けなかった。卒業を控えた身でありながら、海外へ遊びに行っていたらしい。
b. 火をたいていてよほど手が熱くなっていたらしく、菱(しほ)んだ風船がさっと大きくなったのでびっくりする。 (東京 - 小5年下、p.5)
c. 直播きの稲を植える、農業が行われていたらしいことが分かりました。 (東京 - 小5年下、p.112)

(53)에서 「らしい」는 동사 「立候補する・合う・降る」 뒤에 접속하고 있다. 「立候補する・合う・降る」는 동사의 기본형으로, (53)에서는 종지형(終止形)으로 쓰이고 있다. (54)에서 「振まいた・用意した・きめた」는 「タ形」의 종지형에 「らしい」가 접속한 것이다. (55)는 「テイル形」의 종지형 「使っている 注いでいる・来ている」에 조동사 「らしい」가 접속한 것이고, (56)는 동사 「テイタ形」의 종지형 「行なっていた・熱くなっていた・行なわれていた」에 조동사 「らしい」가 접속한 것이다.

따라서 (53)~(56)에서처럼 「らしい」는 동사의 종지형에 접속한다.

4.1.2. 형용사와의 접속

- (57) a.目が赤いところを見ると、だいふ眠たいらしい。 (桜井晴美、1991年、p.71)
 b.みんな水ばかり飲んでいる。あの料理は辛いらしい。 (松本節子、1993年、p.222)
 c.子供達がパクパク美味しそうに食べているから、この学校の給食は美味しいらしい。
 (松本節子 1993年、p.222)
 d.イヌのぐるも、苦勞を認めていました。しかい、ぐるに赤ちゃんが生まれると、苦勞はめずらしいらしく、その尻をくわえてイタズラをしました。 (東京 - 小3年下,p.16)
 e.彼はやはり足がまだいたらしいですか。 (加藤泰彦、1987年、p.126)
- (58) a.機嫌がいいところを見ると、楽しかったらしい。 (桜井晴美、1991年、p.71)
 b.その映画は予想以上に面白かったらしく、彼は何度もパンフレットを読み返していた。
 (砂川有里子 외7人、1998, p.635)

(57)은 형용사의 종지형(終止形)인 「眠たい・辛い・美味しい・めずらしい・いたたい」에 「らしい」가 접속한 것이다. (58)은 형용사 「タ形」의 종지형인 「楽しかった・面白かった」에 조동사 「らしい」가 접속하고 있다. (57,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동사 「らしい」는 형용사의 「종지형」에 접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4.1.3. 형용동사와의 접속

- (59) a. みんなの噂では、あの人は国では翻訳家としてかなり有名らしい。

(砂川有里子외7人 1998, p.632)

b. 今年の冬は、例年より暖からしいです。

c. 彼女はよほど温泉が好きらしい。入ったら最後、一時間でも二題時間でも出てこないのだから。 (松本節子、1993年、p.222)

d.あのへんは、夜は静からしい。 (日本語用例辞典: 1092)

e. 新しく出たビデオカメラはとても便利らしい。 (砂川有里子외7人、1998, p.632)

(60) a. おばあさんは元気らしいね。 (寺村秀夫、1984年、p.248)

b. おばあさんは元気だったらしいね。

(59)와 같이 형용동사 「有名だ·暖かだ·好きだ·静かだ 便利だ」에 「らしい」가 접속할 경우, 「有名らしい·静からしい·好きらしい·静からしい·便利らしい」가 된다. 형용동사에 「らしい」가 접속할 경우는, 형용동사의 어미 「だ」가 탈락한 형태인 어간(語幹) 뒤에 붙는다. 즉 「형용동사 어간 + らしい」의 형태가 된다. 그러나 (60b)처럼 형용동사 「タ形」의 「元気だった」에 「らしい」가 접속할 경우는, 형용동사 「タ形」의 종지형인 「だった」에 「らしい」가 접속된다.

4.1.4. 판정사(判定詞)와의 접속

(61) a. あの人は留学生だ。

b. あの人は留学生らしい。 (益岡隆志, 1993年, p.27)

(62) a. あの人は留学生である。

b. あの人は留学生であるらしい。

(63) a. 富山は大雪らしいですよ。 (寺村秀夫, 1984年, p.248)

b. 富山は大雪だったらしいですよ。

(61)과 같이 「らしい」가 명사술어(名詞述語)에 접속할 경우는, (61a)처럼 「留学生だ」에서 판정사 「だ」가 생략된 「留学生らしい」와 같은 형태가 된다. (62)에서와 같이 판정사가 「である」일 경우는 판정사가 생략되지 않고, 「留学生であるらしい」와

같은 형태가 된다⁷⁾.

또한 (63b)의 「大雪だった」와 같이, 판정사「だ」의 「夕形(だった)」인 경우는 종지형 「だった」에 「らしい」가 접속하게 된다.

4.1.5. 명사와의 접속

(64) a. 発音が子供っぽいといわれます どのようにしたら大人らしい発音になりますか

(酒入郁子, 1991:22)

b. また、ある学者が、雪迎えにクモの足らしいものがついているのをみつけたとも書いて
ありました。 (東京 - 小4年下 p.40)

c. 外にいるのは患者さんらしいと気がつくど、お母さんは、自分のことより、この患者さ
んが無理に体を動かして熱でも出たらと、その方が心配になった。

(東京 - 小5年下 p.59)

d. 今年の年賀状の中に未知の小学生らしい字のものが混じていたが、見たとたん
にピント来た。 (東京 - 小5年下、p.7)

(64)에서 「らしい」는 「大人 クモの足・患者さん・小学生」의 명사에 접속하고 있다. 앞에서 「ようだ」가 「명사+の+ようだ」의 형태로 명사와 결합했던 것과 달리 「らしい」는 명사 바로 뒤에 접속하고 있다.

또한 「らしい」는 보통명사뿐만 아니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식명사와의 접속도 자연스럽다.

(65) a. このわすれ物はあなたのらしい。 (基本語用例辞典: 1092)

b. これはぼくのらしい。

(66) まずくちばしの先にくわえて、ぐうっと引っ張ってみてから、異常なしと認めると、はじめて
飲み込んだものらしいのです。 (東京 - 小5年下、p.13)

(67) 父親が出稼ぎに行っているジュネーブへ、自分も働きに行くところらしかった。

(東京 - 小6年下、p.99)

7) 益岡隆志・田窪行則(1993), p.27 참조.

(68) 一九五四年、北海道でクイムシの大発生がおこったことがある。これは、前年に台風が北海道をおそったとき、たくさんの木が倒れたためらしい。

(東京 - 小6年下 p.43)

(69) 彼は来年中国へ行くつもりらしいですよ。

(65)에서 「らしい」는 「~의 것」을 의미하는 형식명사 「の」에 접속하고 있다. (66~69)에서처럼, 「らしい」는 「もの・ところ・ため・つもり」 등 다양한 형식명사에도 접속하고 있다.

4.1.6. 부사와의 접속

(70) どうもまだらしい。

(70)에서 「らしい」는 부사 「まだ」에 접속하고 있지만, (70) 이외에 「らしい」가 부사에 접속하는 예문은 찾을 수가 없었다.

4.1.7. 조사와의 접속

(71) a. 集まったのは日本人だけらしい。 (基本語用例辞典: 1092)

b. こういうものが毎年決まった時期に見られ、雪迎えというような名前までつけて親しまれているのは、日本でもこの辺りだけらしいのです。 (東京 - 小4年下 p.40)

(72) 食事は10時かららしい。

(71)에서 らしい는 한정 의미 나타내는 부조사 「だけ」에 접속하고 있다. (72)에서는 격조사 「から」에 접속하고 있다.

4.2. 「らしい」의 의미

「らしい」의 의미는 크게 추량의 의미와 접미사 「らしい」의 용법으로 나눌 수 있다.

4.2.1. 추량(推量)

「らしい」는 객관적 추량 판단을 나타낸다. 어떠한 객관적 상황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되며 그 근거에 따라 화자가 직접 추량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73) 子供達がパクパク美味しそうに食べているから、この学校の給食は美味しらしい。
(松本節子 1993年、p.222)
- (74) 司法試験にパスしたとの噂を聞いたが、ほんとうだろうか。ええ、うわさによると、ほんとう(うそ)らしい。
(桜井晴美、1991年、p.66)
- (75) 突然女の人が声を出して、赤ちゃんの顔や頭を撫でるのでよくみると、お母さんは、目が見えないらしいのです。
(東京 - 小6年下、p.100)
- (76) まずくちばしの先にくわえて、ぐうっと引っ張ってみてから、異常なしと認めると、はじめて飲み込んだものらしいのです。
(東京 - 小5年下 p.12)
- (77) アメリカだけではない。色々調べてみると、人間は、世界の各地で砂漠を拡大したり、砂漠となる原因を作ったりしたらしい。
(東京 - 小6年下、p.40)
- (78) 母の様子と、何やら家のなかさがざわざわしていることで、何か変わったことがあるらしい、と感付いたからだった。
(東京 - 小5年下、p.62)
- (79) 雁の群れは、この危険を感じて、エバを変えたらしく、周りには一羽も見えませんでした。
(東京 - 小5年下 p.12)
- (80) こういうものが毎年決まった時期に見られ、雪迎えというような名前までつけて親しまれているのは、日本でもこの辺りだけらしいのです。
(東京 - 小4年下、p.40)

(73)에서는 「子供達がパクパク美味しそうに食べているから」라는 종속절의 근거

를 바탕으로 「この学校の給食は美味しいらしい」라는 추량 판단을 한 것이다. (74)는 「うわさによると」라는 사실을 근거로 「ほんとう(うそ)らしい」라는 추측을 하는 것이다. (75)는 「女の人が声を出して、赤ちゃんの顔や頭を撫でるのでよくみると」라는 사항을 근거로 「お母さんは、目が見えないらしい」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76~78)에서도 「異常なしと認めると」, 「調べてみると 母の様子と」, 「何やら家のなかさがざわざわしていること」라는 사항을 근거로 하여, 각각 「はじめて飲み込んだものらしい」, 「人間は、世界の各地で砂漠を拡大したり、砂漠となる原因を作ったりしたらしい」, 「何か変わったことがあるらしい」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79, 80)에서는 「雁の群れは、この危険を感じて、エバを変えたらしい」, 「日本でもこの辺りだけらしい」라고 추량 판단을 한 근거가 문맥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험이나 지식에 의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らしい」는 종속절의 사항이나 지식, 경험 등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추량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らしい」가 추량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도 부사(副詞)와 함께 쓰이면, 추량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81) a. 気圧計の針が下がってきたから、どうも明日は雨が降るらしい。

b. 【ネクタイピン、カフスポダン、眼鏡、財布、その他金物類、ことにとがったものは、みんなここに置いてください。】と書いてありました。中略…「そうだろう。してみると、勘定は帰りにここではらうのだろうか。」「どうもそうらしい。」

(東京 - 小5年下 p.102)

c. 兄はどうも試験がうまく行かなかたらしく、帰ってくるなり部屋に閉じこもってしまった。

d. 先生、どうも風邪をひいたらしいです。 (海技術研究：113)

(82) a. 彼はどうやら今の会社をやめて、自分で会社を作るらしい。 (村上本二郎:133)

b. 今朝からのどが痛い。どうやら風邪をひいたらしい。

c. どうやら明日は雨らしい。

(83) a. この風邪薬は苦くて、いかにも薬らしい。

b. いかにも病人らしくしているが、彼女は本当は元気なのだ。

(松本節子 1993年、 p.127)

- (84) a. まじめな田中さんが授業中寝るなんて、よほど、疲れているらしい。
b. 歩くこともできないなんて、よほど、病気が悪いらしい。
c. 火をたいていてよほど手が熱くなっていたらしく、萎 (しぼ)んだ風船がさっと大きくなったのでびっくりする。 (東京 - 小5年下、 p.5)

(81~8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량의 「らしい」도, 조동사 「ようだ」처럼 「どうも・どうやら・いかにも」와 같은 진술부사(陳述副詞)와 함께 쓰이고 있다.

(81)에서 「らしい」는 「どうも」라는 진술부사와 함께 쓰인 예이다. 「どうも」에 의하여 「らしい」의 추량의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다. (82)에서는 「どうやら」에 의하여 「らしい」의 추량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83)에서는 「いかにも」와 「らしい」와 호응하고 있다.

(84)의 「よほど」는 정도부사이지만, 「らしい」와 함께 사용되어서, 「らしい」의 추량의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4.2.2. 접미사「らしい」

(85) 残雪は、この沼地に集まる雁の頭領らしい、なかなか利口なやつで、仲間がえさを漁っている間も、油断なく気を配って、猟銃の届くところまで、決して人間を寄せ付けませんでした。 (東京 - 小5年下、 p.10)

(86) これは、3の歴史にも関係があり、いかにも、千年の都であった京都らしい感じがします。 (学校 - 小4年下、 p.9,10)

(87) 札幌市は、外側を囲む六角形が雪を表し、中央の星は北極星を表します。北国の都市らしい市章です。 (学校 - 小4年下、 p.11)

(88) 小さい家で、庭らしい庭也没有。 (基本語用例辞典:1092)

(89) 負けはしたが、去年の優勝チームらしい試合運びだった。 (日本文法大辞典: 903)

(85~89)에서 「らしい」는 「頭領·京都·北国の都市·庭·優勝チーム」이라는 명사에 접속하여 접미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⁸⁾. 명사에 「らしい」가 접속된 「頭領ら

しい・京都らしい・北国の都市らしい・庭らしい・優勝チームらしい」의 형태는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명사에 접미사 「らしい」가 접속된 형태인 「名詞 + らしい」는 형용사로 볼 수가 있다⁹⁾. 이 때, 「らしい」는 「ふさわしい(답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4.3.3. 추량 조동사 「らしい」와 접미사 「らしい」의 비교

「らしい」는 추량의 의미로 조동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접미사로 쓰이기도 한다. 명사에 「らしい」가 접속할 때, 추량의 용법과 접미사의 용법이 있기 때문에, 두 용법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 (90) a. あっちから来るのは女でなく男らしい.
 b. あっちから来るのは女でなく男(である)らしい.
 (91) a. 彼の態度は男らしい.
 b.*彼の態度は男(である)らしい.

(90, 91)에서 「男らしい」는 「명사+らしい」의 형태이어서, 형태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문법적 면으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90)의 「男らしい」는 「男であるらしい」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91)의 「男らしい」는 접미사적인 용법으로 「ふさわしい」라고 하는 특별한 내용을 갖는 형용사로서 다른 표현으로는 「男性的」이라는 의미가 된다¹⁰⁾.

- (92) a. 話を聞くとあの人はどうも学者らしい.
 b. 話を聞くとあの人はどうも学者(である)らしい.
 (93) a. あの人はいかにも学者らしい生活をしている。
 b. *あの人はいかにも学者(である)らしい生活をしている。

8) 松村明編(1971), 『日本文法大辞典』, 明治書院, p.903.
 9) 日本語教育学会編(1982), 『日本語教育事典』, 大修館書店, p.385.
 10) 村上本二郎(1986), 『初歩の国文法』, 学文社, pp.133~135 참조.

(92)의 경우에는 (92b)처럼 「学者であるらしい」라고 하여도 의미가 변하지 않지만, (93)의 경우에는 (93b)처럼 「学者であるらしい生活」은 어색한 표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92)의 「学者らしい」는 조동사의 「らしい」이며, (93)의 「学者らしい」는 접미사의 「らしい」이다.

양자를 구분하기에는 「명사」와 「らしい」와 사이에 「である」라는 말을 넣어서 그 문에 의미가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92)처럼 조동사 「らしい」이며, (93)처럼, 「명사」와 「らしい」와 사이에 「である」를 넣어서 그 문이 비문이면 「ふさわしい」라는 의미의 접미사 「らしい」이다¹¹⁾.

(94) 外にいるのは患者さんらしいと気がつく、お母さんは、自分のことより、この患者さんが無理に体を動かして熱でも出たらと、その方が心配になった。

(東京 - 小5年下、p.59)

a.外にいるのは(どうやら)患者さんらしいと気がつく、お母さんは、自分のことより、この患者さんが無理に体を動かして熱でも出たらと、その方が心配になった。

b.*外にいるのは患者さん(にふさわしい)と気がつく、お母さんは、自分のことより、この患者さんが無理に体を動かして熱でも出たらと、その方が心配になった。

(95) 今年の年賀状の中に未知の小学生らしい字のものが混じっていたが、見たとたんピント来た。 (東京 - 小5年下、p.7)

a. 今年の年賀状の中に(どうやら)未知の小学生らしい字のものが混じっていたが、見たとたんピント来た。

b.*今年の年賀状の中に未知の小学生(にふさわしい)字のものが混じっていたが、見たとたんピント来た。

「4.3.1」에서 추량의 「らしい」는 진술부사 「どうやら」와 호응관계에 있다. (94, 95)의 예문은 (94a, 95a)처럼, 진술부사「どうやら」를 넣었을 때는 적격문(適格文)이며, 「らしい」를 「にふさわしい」로 바꾸어 넣으면 (94b, 95b)처럼, 비문(非文)이 된다.

11) 村上本二郎(1986), 『初歩の国文法』, 学文社, pp.133~135 참조.

즉, (94, 95)의 「らしい」는 추량의 「らしい」이기 때문에 「どうやら」와는 호응관계에 있지만, 「らしい」를 「にふさわしい」로 바꾸어 넣으면 비문이 되는 것이다.

(96) 札幌市は、外側を囲む六角形が雪を表し、中央の星は北極星を表します。北国の都市らしい市章です。 (学校 - 小4年下、p.11)

a.?札幌市は、外側を囲む六角形が雪を表し、中央の星は北極星を表します。(どうやら) 北国の都市らしい市章です。

b. 札幌市は、外側を囲む六角形が雪を表し、中央の星は北極星を表します。北国の都市(にふさわしい)市章です。

(97) 負けはしたが、去年の優勝チームらしい試合運びだった。 (日本文法大辞典: 903)

a. *負けはしたが、(どうやら)去年の優勝チームらしい試合運びだった。

b. 負けはしたが、去年の優勝チーム(にふさわしい)試合運びだった。

(96, 97)의 예문은 진술부사 「どうやら」를 넣었을 때 (96a, 97a)는 어색한 문이 되지만, (96b, 97b)처럼 「らしい」를 「にふさわしい」로 바꾸어 넣어도 적격문이 된다. (96, 97)의 예문은 접미사의 「らしい」이기 때문에, 진술부사 「どうやら」를 바꾸어 넣으면 비문이지만, 「らしい」를 「にふさわしい」로 바꾸어 넣어도 적격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らしい」가 「どうやら」와 호응관계이면 그 문의 「らしい」는 추량의 「らしい」이며, 「らしい」를 「にふさわしい」로 바꾸어 넣을 수 있으면 그 문의 「らしい」는 접미사「らしい」이다.

따라서 (94, 95)의 「らしい」는 추량의 「らしい」이며, (96, 97)의 「らしい」는 접미사의 「らしい」이다¹²⁾.

12) 小鹿良太編(1993), 『国文法入試の達人』, 文英堂, p.113 참조.

V. 「ようだ」と「らしい」의 비교

「ようだ」と「らしい」의 의미를 살펴본 결과, 「ようだ」에는 「추량·비유·예시」의 의미용법이 있었으며, 「らしい」에는 「추량」과 「접미사」의 용법이 있었다. 「ようだ」와 「らしい」에 공통적으로 있는 의미가 추량이며, 이것은 「ようだ」와 「らしい」의 기본적인 의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ようだ」와 「らしい」의 추량의 의미를 비교하여 보기로 하겠다.

5.1. 「ようだ」と「らしい」 모두 사용 가능한 경우

다음 예문은 「ようだ」를 「らしい」로 바꾸어 사용하여도 의미상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경우이다.

(98) 地図で見ると、彼女の学校からはうちまで直線でも二キロ近くあるようだ。

(東京 - 小5年下、p.6)

a. 地図で見ると、彼女の学校からはうちまで直線でも二キロ近くあるらしい。

(99) 玉の届く距離の三倍もはなれている地点をエバにしているようでした。

(東京 - 小5年下、p.17)

a. 玉の届く距離の三倍もはなれている地点をエバにしているらしかったです。

(100) 四班は、いろいろな意見が出て、まとまっていません。だいたい、一班(いっばん)と同じような案が 多かったようです。 (光村82 - 小5年下、p.23)

a. 四班は、いろいろな意見が出て、まとまっていません。だいたい、一班(いっばん)と同じような案が 多かったらしいです。

(98~100)의 「ようだ」의 예문에서, 추량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서술 내용은 어떠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ようだ」를 (98a~100a)처럼 「らしい」와 바꾸어 사용하여도 의미상 거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98~100)에서 「ようだ」를 (98a~100a)처럼 「らしい」와 바꾸어 사용하여도 의미상 거의 변화가 없다.

이처럼 상황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낼 경우에는 「ようだ」를 「らしい」로 바꾸어 사용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의미상 거의 변화가 없다¹³⁾고 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은 「らしい」를 「ようだ」로 바꾸어 사용하여도 의미상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경우이다.

(101) 子供達がパクパク美味しそうに食べているから、この学校の給食は美味しいらしい。
(松本節子、1993年、p.223)

a. 子供達がパクパク美味しそうに食べているから、この学校の給食は美味しいようだ。

(102) まずくちばしの先にくわえて、ぐうっと引っ張ってみてから、異常なしと認めると、はじめて飲み込んだものらしいのです。

a. まずくちばしの先にくわえて、ぐうっと引っ張ってみてから、異常なしと認めると、はじめて飲み込んだものようです。

(103)そこは、夏の出水で大きな水溜まりができて、雁のえさが十分にあるらしかったのです。
(東京 - 小5年下,p.19)

a.そこは、夏の出水で大きな水溜まりができて、雁のえさが十分にあるようでした。

(104) 今度出たあの本は面白いらしい。どこの本屋でも売り切れで、ないから。

(松本節子、1993年、p.222)

a. 今度出たあの本は面白いようだ。どこの本屋でも売り切れで、ないから。

(101)의 예문에서, 「この学校の給食は美味しい」라는 것은 「子供達がパクパク美味しそうに食べている」라는 상황에서 이끌어 낸 것이다. (102)에서도 「くちばしの先にくわえて、ぐうっと引っ張ってみてから、異常なしと認める」라는 상황을 근거로 하여서, 「はじめて飲み込んだ」라는 추량 판단을 내린 것이다. (103)에서도 「そこは、夏の出水で大きな水溜まりができた」라는 상황에서 「雁のえさが十分にある」라는 추량 판

13) 日本語教育学会編(1982), 『日本語教育事典』, 大修館書店, p.377 참조.

단을 이끌어 낸 것이다. (104)도 「どこの本屋でも売り切れで、ないから」라는 상황을 근거로 해서 「今度出たあの本は面白い」라는 판단을 내렸다.

어떠한 상황(狀況)을 징후나 증거로 하여서 다른 사항(事項)을 이끌어내는 (101~104)와 같은 예문에서는 「らしい」가 사용되지만, 「ようだ」도 사용할 수 있다¹⁴⁾고 하였다.

(105) 周りが少し薄暗くなった。さしもの騒ぎもまずは収まったらしい。

(東書 - 小5年下、p.6)

a. 周りが少し薄暗くなった。さしもの騒ぎもまずは収まったようだ。

(106) 人間は、世界の各地で砂漠を拡大したり、砂漠となる原因を作ったりしたらしい。

(東書 - 小6年下、p.41)

a. 人間は、世界の各地で砂漠を拡大したり、砂漠となる原因を作ったりしたようだ。

(105, 106)에서는 추량 판단을 내린 근거가 문맥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らしい」를 사용함으로써 근거의 존재가 암시된다고 하였다¹⁵⁾. (105, 106)와 같은 「らしい」는 「ようだ」와 바꾸어 사용하여도 의미상 큰 변화는 없다.

(107) 実際の宗教的な行事として、このころの天皇は、稲のみのりのゆたかになることや、

ひでりに雨のふることなどを神に祈る役目をもっていたらしい。新嘗(にいなめ)まつりをお

こなうことも天皇の仕事であったようだ。 (寺村秀夫、1984年、p.249)

추량의 「ようだ」와 추량의 「らしい」의 의미·용법은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ようだ」와 「らしい」를 서로 바꾸어 넣어도, 그다지 의미는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다. 寺村秀夫(1984)는 (107)과 같이, 「らしい」를 「ようだ」로, 「ようだ」를 「らしい」로 바꾸어 넣어도 커다란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¹⁶⁾.

14) 仁田義雄外(2000), 『日本語の文法3・モダリティ』, 岩波書店, pp.149~150.

15) 仁田義雄外(2000), 『日本語の文法3・モダリティ』, 岩波書店, p.149.

16) 寺村秀夫(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第II巻)』, くろしお出版, p.249 참조.

실제 언어생활에서 「ようだ」를 「らしい」로, 「らしい」를 「ようだ」로 바꾸어 사용하여도 의미상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추량의 「ようだ」와 추량의 「らしい」는 모두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추량 판단을 내리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5.2. 「ようだ」만 사용 가능한 경우

(108) あの人はどうやら結婚しているようだ。結婚指輪をしていたもの。

(益岡隆志 1993年、p.128)

a. *あの人はどうやら結婚しているらしい。結婚指輪をしていたもの。

(108a)에서 「あの人はどうやら結婚している」라는 내용은 화자가 직접 관찰하여 얻은 내용이다. (108)처럼, 화자가 직접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할 경우에는 「ようだ」는 적격문(適格文)이지만, (108a)처럼 「ようだ」를 「らしい」로 바꾸어 넣으면 비문(非文)이 된다.

(109) その菩提樹(ボダイジュ)はここから見ると、こじんまりと、柔らかく、産毛(うぶげ)に覆われているようだった。

(東京 - 小5年下、p.85)

a.*その菩提樹(ボダイジュ)はここから見ると、こじんまりと、柔らかく、産毛(うぶげ)に覆われているらしかった。

(110) そこには、想像もできないような光景がひろがっていた。(光村82 - 小5年下 p.89)

a.*そこには、想像もできないらしい光景がひろがっていた。

(109)는 「菩提樹(ボダイジュ)をここから見ると」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こじんまりと、柔らかく、産毛(うぶげ)に覆われている」라는 「추량판단」을 한 것이다. (110)에서 본인이 직접 본 것을 바탕으로 「想像もできない」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109, 1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단의 근거가 화자의 시각(視覺)에 의한 것

일 경우는 「ようだ」만 사용할 수 있으며, (109a. 110a)와 같이 「らしい」를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111) 大きなひょうが降ってきて、パラパラと頭や顔にあたるようだ。

(東京 - 小5年下、p.58)

a.*大きなひょうが降ってきて、パラパラと頭や顔にあたるらしい。

(112) ところが、数日前、私が風邪をひいて寝込んだとき、今まで気が付かなかった母の
忙しさがよく分かったような気がした。 (東京 - 小6年下、p.51)

a.*ところが、数日前、私が風邪をひいて寝込んだとき、今まで気が付かなかった母の
忙しさがよく分かったらしい気がした。

(111, 112)에서 「ひょうが頭や顔にあたる 母の忙しさが分かった」는 본인이 직접 느낀 것이다. (111)의 상황은 자기의 감각에 의한 것이고, (112)의 상황은 자기가 직접 느낀 것이다. 이처럼 상황이 직접체험(直接体験)에 의한 것일 때는 「ようだ」만 사용된다.

(113) 賛成が多いようなので、この議案は可決されました。(仁田義雄編、1996年、p.45)

a.*賛成が多いらしいので、この議案は可決されました。

(113)은 회의장의 상황에서 「賛成が多い」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113)은 현장의 상황을 바탕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ようだ」라는 추량의 판단을 한 것이다. 이 경우는 「ようだ」만 사용할 수 있으며, 「らしい」는 사용하면 비문(非文)이 된다¹⁷⁾.

(108~113)에서처럼 추량 판단의 근거가 「시각, 직접 체험, 자기 책임」 등일 경우는 「ようだ」만 사용할 수 있다.

17) 仁田義雄編(1996), 『日本語文法セルフ・マスターシリーズ6・文の述べ方』, くろしお出版, p.45 참조.

5.3. 「らしい」만 사용 가능한 경우

(114) 本を読んだんだけど、この村は、幽霊が出るらしい。

(仁田義雄編、1996年、p.45)

a.*本を読んだんだけど、この村は、幽霊が出るようだ。

(114)는 「読んだ本の内容」을 근거(根據)로 하여 「この村は 幽霊が出るらしい」라는 추량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114)처럼, 다른 사람의 조사에 의한 상황을 근거로 추량의 판단을 내린 경우는 「らしい」만 사용할 수 있으며, 「ようだ」를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115) あの人はどうも結婚しているらしい。田中君が子供と遊園地で遊んでいるのをみたと
言っている。

(益岡隆志、1993年、p.128)

a.*あの人はどうも結婚しているようだ。田中君が子供と遊園地で遊んでいるのをみたと
言っている

(116) あの人の話を聞くと、仕事はなかなかつらいらしいですよ。(基本語用例辞典: 1092)

a.*あの人の話を聞くと、仕事はなかなかつらいようですよ。

(117) 本人から直接聞いたんだけど、彼は仕事を続ける気はないらしいよ。

(仁田義雄編 1996年、p.45)

a.*本人から直接聞いたんだけど、彼は仕事を続ける気はないようだよ。

(115)에서는 「あの人は結婚している」에 추량의 판단을 내린 증거(證據)가 「田中君が子供と遊園地で遊んでいるのをみた」이다. 그 증거는 「と言っている」라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전문(伝聞)이다.

(116, 117)도 「~を聞くと・~から直接聞いたんだけど」라는 전문을 근거로 「仕事はなかなかつらいらしい」, 「彼は仕事を続ける気はないらしい」라는 추량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남에게서 전해들은 내용, 즉 전문을 근거로 추량의 판단을 내릴 때에는 「らしい」는 적격문이지만, 「116a. 117a」에서처럼 「ようだ」는 비문이 된다.

(118) 「司法試験にパスしたとの噂を聞いたが、ほんとうだろうか。」

「ええ、うわさによると、ほんとう(うそ)らしい。」 (桜井晴美、1991年、p.66)

a.*「司法試験にパスしたとの噂を聞いたが、ほんとうだろうか。」

「ええ、うわさによると、ほんとう(うそ)のようだ。」

(119) 「この薬は、前の持ち主の骨董屋によると、製造してから百年と三日たった最初の満月の日から効き目が現れるらしい……その満月が、ちょうど昨日だったのさ」

(仁田義雄外、2000年、p. 150)

a. ?「この薬は、前の持ち主の骨董屋によると、製造してから百年と三日たった最初の満月の日から効き目が現れるようだ……その満月が、ちょうど昨日だったのさ」

(118)과 (119)에서는 각각 「うわさによると」, 「前の持ち主の骨董屋によると」라는 증거에 의하여 추량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118, 119)는 「によると」라는 표현에서, 판단의 증거가 되는 정보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임을 알 수 있다. 판단의 증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것일 때에는 「らしい」는 적격문이지만, (118a, 119a)처럼 「ようだ」는 비문이 된다.

(114~1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량의 판단 근거가 「전문(伝聞), 간접 체험, 다른 사람의 조사 내용」 등의 경우는 「らしい」만 사용할 수 있다.

VI. 결론

일본어의 조동사 「ようだ」와 「らしい」는 「추량」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비슷한 점이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ようだ」와 「らしい」의 의미 용법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ようだ」의 접속 형태는 다양하다. 「ようだ」는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의 연체형에 접속하였다. 판정사 「だ」에는 접속할 수는 없으나, 판정사의 夕形인 「だった」에는 접속하였다. 명사인 경우는 「명사 + 연체조사(の)」에 「ようだ」가 접속하였다. 특히, 의문을 나타내는 종조사 「か」에 「ようだ」가 접속한 경우는 「ようだ」는 의문표현 「か」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표현(か)+連体助詞(の)」의 형태에 「ようだ」가 접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ようだ」의 의미는 추량, 비유, 예시로 나눌 수 있다. 「ようだ」의 추량은 어떠한 상황을 근거로 하여 추측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ようだ」가 진술부사 「どうも・どうやら・いかにも・さも」 등과 호응 관계에 있으면, 추량의 의미가 더 분명해졌다.

특히, 「何か・何だか」, 「だれか・だれも」, 「どこか・どれも・どの」, 「いつか」 등 불확실한 사항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일 때도, 「ようだ」의 추량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추량의 「ようだ」가 사고동사(思考動詞)인 「思う・思える・感じる・気がする・考える」와 함께 사용될 때도 「ようだ」의 추량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ようだ」의 비유의 용법은 「명사 + の ようだ」와 「절(節) + ようだ」의 형태로 나타나며, 진술부사 「まるで・ちょうど」와 「ようだ」가 호응 관계에 있으면 비유의 의미가 더 분명해졌다. 「ようだ」의 예시는 하나의 예를 제시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용법이며, 진술부사 「たとえば」와 「ようだ」가 호응 관계에 있으면 예시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3) 「らしい」의 접속 형태도 다양하다. 「らしい」는 동사와 형용사는 종지형에 접

속하였다. 형용동사에는 어간에 접속하였고, 형용동사의 ㄷ형인 경우는 「だった」에 접속하였다. 판정사 「だ」에 「らしい」가 접속하면, 「だ」는 생략되었으며, 판정사의 ㄷ형인 「だった」에는 「らしい」가 접속되었다. 판정사가 「である」일 경우는 판정사가 생략되지 않고, 「留学生であるらしい」와 같이 「である」에 「らしい」가 접속되었다.

또한 「らしい」는 명사뿐만 아니라, 「の もの・ところ・ため・つもり」등 다양한 형식명사에도 접속되었다. 「らしい」는 부사와 조사에도 접속되지만, 그 예는 많지 않았다. 부사의 경우는 「まだらしい」와 같은 예문이 있었으며, 격조사 「から」나 副助詞 「だけ」에 접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4) 「らしい」는 추량과 접미사의 용법으로 나눌 수 있다. 「らしい」의 추량은 어떠한 객관적인 상황을 근거로 하여 추측의 판단을 하는 것이었다. 이때, 「どうも・どうやら・いかにも」와 같은 진술부사가 「らしい」와 호응 관계에 있으면, 「らしい」의 추량의 의미는 더 분명하게 되었다.

접미사 「らしい」는 명사에 접속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역할을 하며, 「～にふさわしい(～답다)」와 바꾸어서 사용할 수도 있었다.

5) 실제 언어 현상에 있어서 「ようだ」를 「らしい」로, 「らしい」를 「ようだ」로 바꾸어 사용하여도 의미상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추량의 「ようだ」와 추량의 「らしい」는 모두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추량 판단을 내리는 표현이기 때문일 것이다. 「ようだ」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서술 내용이 「시각(視覺), 직접 체험, 자기 책임」 등을 나타내는 예문이었다. 추량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서술 내용이 주로 「전문(伝聞), 간접 체험, 다른 사람의 조사 내용」 등인 경우는 「らしい」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참고 문헌

<예문 출전>

- 日本小学校教科書(1980), 新しい国語(3年上~6年下), 東京書籍. (東京)
- 日本小学校教科書(1978), 国語(1年上・下), 光村図書出版. (光村78)
- 日本小学校教科書(1979), 国語(2年上・下), 光村図書出版. (光村79)
- 日本小学校教科書(1982), 国語(5年上・下), 光村図書出版. (光村82)
- 日本小学校教科書(1976), 国語(3・4年上・下), 学校図書. (学校)
- 松本節子・星野恵子(1993), 『1・2級対対策文法・語彙編・日本語能力試験』,
UNICOM. (松本節子 1993)
- 桜井晴美(1991), 『自然な日本語Ⅱ』, 凡人社. (桜井晴美, 1991)
- 加藤泰彦・福地務(1987), 『テンス・アспект・ムード p.123』, (外国人のための日本語 例文・問題シリーズ15), 荒竹出版. (加藤泰彦, 1987)
- 酒入郁子(1991), 『外国人が日本語教師によくする100の質問』, バベル・プレス
(酒入郁子, 1991)

외국문헌

<단행본>

- 益岡隆志・田窪行則(1993), 『基礎日本語文法(改訂版)』, くろしお出版.
- 寺村秀夫(1984), 『日本語のシンタク스와意味(第Ⅱ卷)』, くろしお出版.
- 田近洵一編(1993), 『くわしい国文法』, 文英堂.
- 小鹿良太編(1993), 『国文法入試の達人』, 文英堂.
- 新国語研究会編(1993), 『くわしい国文法問題集』, 文英堂.
- 村上本二郎(1986), 『初歩の国文法』, 学文社.
- 森田良行(1977), 『基礎日本語1』, 角川書店.
- 森田良行(1980), 『基礎日本語2』, 角川書店.
- 森田良行(1984), 『基礎日本語3』, 角川書店.
- 桜井晴美(1991), 『自然な日本語Ⅱ』, 凡人社,

井口厚夫・裕子(1994), 『日本語文法整理読本』, バベル・プレス.
 柴田武(1982), 『ことばの意味 3』, 平凡社.
 富田隆行(1993), 『教授法マニュアル70例 上・下』, 凡人社.
 仁田義雄外著(2000), 『日本語の文法 3・モダリティ』, 岩波書店.
 仁田義雄編(1996), 『日本語文法セルフ・マスターシリーズ6・文の述べ方』, くろしお出版.
 寺村秀夫外編(1987), 『ケーススタディ日本文法』, 桜楓社.
 寺村秀夫(1980), 『日本語の文法(下)』, 国立国語研究所.
 名柄迪外著(1987), 『外国人のための日本語例文 問題シリーズ2・形式名詞』, 荒竹書店
 森田良行(1988), 『外国学生用日本語教科書』(上級 I・II), 早稲田大学日本語 研究教育センター

<사전>

日本語教育学会編(1982), 『日本語教育事典』, 大修館書店.
 松村明編(1971), 『日本文法大辞典』, 明治書院.
 広瀬正宜・庄司香久子(1994), 『外国語学習使い分け辞典』(Effective Japanese Usage Guide), 講談社.
 磯貝英夫・室山敏昭(1989), 『類語活用辞典』, 東京堂
 砂川有里子 外 7 人(1998), 『教師と学習者のための日本語文型辞典』, くろしお出版.

<논문>

紙谷栄治(1993), 「助動詞「ようだ」について」『国文学』(71), 関西大学国文学会.
 紙谷栄治(1995), 「助動詞「ようだ」「らしい」について」『日本語の研究』, 明治書院.
 中畠孝幸(1990), 「不確かな判断-ラシイとヨウダ-」『日本語学文学 1 号』, 三重大学.
 柏岡珠子(1980), 「ヨウダとラシイに関する一考察」『日本語教育』(41号), 日本語教育学会.
 仁田義雄(1992), 「判断から発話・伝達へー伝聞・婉曲を中心にー」『日本語教育』(41号), 日本語教育学会.
 小林幸江(1980), 「推量の表現及びそれと呼応する副詞について」『日本語語学校論集』(7), 東京外国語大学.
 三宅知宏(1995), 「ラシイとヨウダ」『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上)』, くろしお出版.

- 早津恵美子(1988), 「『らしい』と『ようだ』」『日本語学』(第7巻第4号), 明治書院.
- 田中俊子(1988), 「いわゆる推量のラシイとヨウダ—モダリテイの強弱とコトの内容の構造の観点から」『東北大学日本語教育研究論集』(第3号), 東北大学.
- 田野村忠温(1991), 「『らしい』と『ようだ』の意味の相違について」『言語学研究』(10号), 京都大学言語学研究室.
- 田中敏性(1983), 「否定述語・不确实述語の作用面と対象面」『日本語学』, 明治書院.
- 野林靖彦(1999), 「類義のモダリテイ形式『ヨウダ』『ラシイ』『ソウダ』—三水準にわたる重層的考察—」『国語学』197.

한국 문헌

<단행본>

- 金宇烈(1973), 『基礎日语法教室』, 新雅社.
- 김경호(2004), 『start 일본어 문법』, 책사랑.
- 이삼순(2004), 『혼자서도 쉬워요! 일본어 문법』, 제이앤씨.
- 全基定(1984), 『日語文法』, 博英社.

<Abstract>

The study of Japanese expression *yooda*(ようだ) and *rashii*(らしい)

Lee Keun-II

The study of synonymous expression is very significant field in Japanese Education. Conjecture expression in Japanese are consist of various synonymous expression. Even within conjecture expression, *yooda*(ようだ) and *rashii*(らしい) have similar meaning. So, learner of Japanese need to be guided correctl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yooda*(ようだ) and *rashii*(らしい) and use them correctly.

In this paper, it will focus on the meaning and usage of *yooda*(ようだ) and *rashii*(らしい), study the elements that makes the difference in meanings and usage by analyzing various examples.

First, there is various form in connecting *yooda*(ようだ). *yooda*(ようだ) can be connected to verbs, and na-adjective's attributive verb. It can't be used with irregular verb *da*(だ), but can be connected to *datta*(だった), the irregular verb *ta-form*(タ形). In use of noun, *yooda*(ようだ) is followed after [noun+ descriptive postposition *no*(の)]. *yooda*(ようだ) can also be connected to [Question expression *ka*(か) + descriptive postposition *no*(の)].

-Please note that the 'connecting' in this abstract means not conjunction but putting the words together.

Second, *yooda*(ようだ) can be decomposed into three categories: conjecture, figurative, illustration.

yooda(ようだ)'s conjecture is forming supposition based on certain ground and situation. When *yooda*(ようだ) is under sequence of sentence with adverb

such as *doomo*(どうも) · *dooyara*(どうやら) · *ikanimo*(いかにも) · *samo*(さも), the meaning of conjecture becomes more clear. Especially, we notice that the meaning of conjecture becomes even more clear when it is used with expression of uncertainty such as *nanika*(何か) · *nandaka*(何だか), *dareka*(だれか) · *daremo*(だれも), *dokoka*(どこか) · *doremo*(どれも), *itsuka*(いつか), etc. Also, when *yooda*(ようだ) is used with thinking verbs, such as *omou*(思う) · *omoeru*(思える) · *kanjiru*(感じる) · *ki ga suru*(気がする) · *kangaeru*(考える), as well.

yooda(ようだ)'s usage as figurative is [noun+ no *yooda*(のようだ)] and [clause + *yooda*(ようだ)], and the meaning gets more clear when it is used with adverb, such as *marude*(まるで) · *choodo*(ちょうど).

yooda(ようだ)'s usage as example is when it suggest example to explain situation and the meaning gets more clear when it is used with adverb, such as *tatoeba*(例えば).

Third, there is various form of *rashii*(らしい)'s usage. *rashii*(らしい) is connected to final-form of verbs and adjectives, na-adjective is connected to stem, and in case of na-adjective's *ta-form*(タ形), it is connected to *datta*(だった).

When *rashii*(らしい) is connected to irregular verb *da*(だ), *da*(だ) gets omitted, but *datta*(だった) and *dearu*(である) is connected. Also, there are some cases when *rashii*(らしい) is connected to not only noun but also formal noun, adverbs, postposition.

Fourth, there is two usage of *rashii*(らしい). One is conjecture usage and the other is suffix. *rashii*(らしい)'s conjecture is forming supposition based on objective ground. In this case, *rashii*(らしい)'s meaning gets more clear, if it is used with adverbs such as *doomo*(どうも) · *dooyara*(どうやら) · *ikanimo*(いかにも). *rashii*(らしい) used as suffix makes adjective with noun, and can be replaced with ni *husawashii*(にふさわしい).

Fifth, there are lots of cases when there is no big difference between using *yooda*(ようだ) and *rashii*(らしい) in reality. It is because both conjecture

yooda(ようだ) and conjecture *rashii*(らしい) are conjecture expression based on certain ground. When that certain ground are visual, direct experience, personal responsibility, only *yooda*(ようだ) is used. On the other hand, only *rashii*(らしい) can be used when the ground for supposition are hearsay, indirect experience, other people's investigation.